

설명적 텍스트 쓰기 양상 분석을 통한 쓰기 윤리 교육 내용 탐색

장민경*

<차례>

- I. 머리말
- II.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구체화 방안
- III. 설명적 텍스트 쓰기의 양상 분석
- IV.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쓰기 윤리 교육 내용
- V. 맷음말

I. 머리말

2011년 8월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이하 2009 교육과정)이 공시되었다. 내용 체계에 대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 있던 ‘태도’ 항목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으로 교체되었다가 다시 구성 요소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 교육과정에서 쓰기 영역의 ‘태도’는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쓰기의 윤리’, ‘쓰기의 생활화’로 제시되어 있으며,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의 ‘태도’에 속했던 ‘동기’, ‘흥미’, ‘습관’, ‘가치’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

* 서울대 대학원(naru0303@paran.com)

되, ‘쓰기의 생활화’와 같이 각 영역에 따라 명칭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영역의 ‘태도’에 대한 하위 항목이 동일했던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2009 교육과정에서는 ‘쓰기의 윤리’와 같이 각 영역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을 추가하였다.¹⁾ 개정 교육과정에 ‘쓰기의 윤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쓰기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공감대 및 대처 방안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쓰기 윤리에 대해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쓰기 영역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과 해설 중에서 쓰기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09 교육과정의 ‘쓰기 윤리’ 관련 내용

구분	교육과정 내용
초등 5~6 학년군	(6)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쓴다. • 다른 사람의 글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도록 지도함. • 필요한 경우 참고하거나 조사한 내용의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함.
중학교 1~3 학년군	(3)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 관찰, 조사,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쓰기 윤리 준수하기 등도 강조하여 지도함. (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 및 악성 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진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함.

1) 2009 교육과정에서 쓰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듣기 · 말하기 :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공감과 배려, 듣기 · 말하기의 윤리
- 읽기 : 가치와 중요성, 동기와 흥미, 읽기의 생활화
- 문법 :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 국어 탐구에 대한 흥미, 국어 의식과 국어 사랑
- 문학 : 문학의 가치와 중요성, 문학에 대한 흥미, 문학의 생활화

구분	교육과정 내용
국어 I (선택)	[작문] (7)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 • 작문의 관습에는 필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도 있음을 강조 함.
국어II (선택)	[작문] (9) 글의 전달과 사회적 파급력과 연관된 매체의 효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책임감 있게 인터넷상의 글쓰기를 한다.
화법과 작문 (선택)	[화법과 작문의 본질] (3)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이해하고 화법과 작문의 윤리를 인식한다. [정보 전달] (6) (정보 전달의 원리)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간명한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 주관적 관점으로 정보를 과장·축소·왜곡하지 않기 (14)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 정보의 효용성, 조직의 체계성, 표현의 적절성, 정보 윤리를 점검하여 고쳐쓴다. • 자료를 수집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존중과 같은 글쓰기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기

<표 1>로부터 쓰기 윤리 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절하지 않고 쓰기’는 5~6학년군부터 ‘화법과 작문’까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실대로 쓰기’는 중학교에서 관찰, 조사, 실험, 연구 보고서 쓰기와 관련하여, 고등학교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에서 다루고 있다.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쓰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다.²⁾

- 표절하지 않고 쓰기 : 저작권 존중, 올바른 인용법, 출처 밝히기
- 관찰, 조사, 실험, 연구한 내용을 사실대로 쓰기
- 허위 사실, 악성 댓글 등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쓰기

2)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실제 교육 내용이 이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내용은 교과서, 교사 등의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 개발 및 공급은 검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검정에 합격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쓰기 윤리 교육의 내용은 교과서 종류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표절하지 않고 쓰기’, ‘사실대로 쓰기’,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쓰기’를 충실히 학습하면 쓰기 윤리를 지키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본고는 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은 높여줄 수 있으나, 그러한 윤리 인식이 실질적인 글쓰기 상황에서 실천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쓰기 윤리는 일종의 규범이지만 쓰기 윤리가 지켜졌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결국 쓰기의 과정과 결과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지녔으나, 학생의 글에 그러한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쓰기 윤리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즉, 쓰기 과정 중에 생기는 문제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였는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쓴 글이 윤리적 인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내용으로 ‘글을 윤리적으로 쓰는 방법과 그와 관련된 지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구체화 방안

1. 쓰기 윤리 교육 연구의 현황

1) 쓰기 윤리의 개념 및 범주

박영민(2009a)에서는 쓰기 윤리를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인 규범”으로 정의하였다. 가은아(2009)에서는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 또는 행위의 규범”이라 정의하였고, 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은 표현하기 단계뿐만 아니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등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박영민, 최숙기(2008)에서는 쓰기 수행의 전 과정이 쓰기 윤리의 판단 대상이며, 인터넷 환경에서의 내용 생성, 표현, 유통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쓰기 윤리의 범주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가은아(2009)에서는 ‘정직하게 쓰기, 진실하게 쓰기, 사실대로 쓰기, 배려하며 쓰기’를 제시하였고, 박영민(2009b)에서는 진실성, 정직성, 합리성, 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정직성 범주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표절하지 않기와 관련되며, 진실성 범주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게 쓰기와 관련된다. 배려하며 쓰기와 사회성 범주는 쓰기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범주이다. 두 연구에서 하나의 범주가 의미상 차이를 보이는데, 가은아(2009)의 ‘사실대로 쓰기’는 관찰, 조사, 실험,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보고하는 글 쓰기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의미한다. 박영민(2009b)의 합리성 범주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준거에 의한 쓰기를 의미하며, 나머지 세 범주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2) 쓰기 윤리 실태 및 쓰기 윤리 교육 방안

박영민, 최숙기(2008)에서는 중학생들의 쓰기 윤리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설문 내용은 쓰기 윤리를 어긴 경험과 쓰기 윤리에 대한 학습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박영민(2009a)에서는 쓰기 윤리 인식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을 쓰기 윤리 의식, 쓰기 과제 환경, 저작권 인정, 쓰기 윤리 준수 노력으로 구성하고, 성별·학년별 차이를 고찰하였다.

쓰기 윤리 교육의 실천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유한구 외(2007), 박영민(2008), 박영민(2009b) 등이 있다. 유한구 외(2007)에서는 국어과, 과학과, 윤리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개발하였다. 전체 목차는 “I. 연구의 성격과 연구자의 자세, II. 연구의 수행 과정과 윤리, III. 과학, 과학자, 그리고 연구 윤리, IV. 생각과 표현의 윤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IV장을 국어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쓰기 윤리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연구 윤리 교육이 범교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국어과가 도구 교과로서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영민(2008)에서는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대

해 직접적 방안과 간접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직접적 방안으로는 직접적 가치 탐구 모형의 활용, 쓰기 윤리의 딜레마를 활용한 방안, 쓰기 윤리 제정 활동을 활용한 방안, 간접적 방안으로는 반성적 쓰기의 적용, 자기 평가의 활용, 거울 효과 및 상징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박영민(2009b)에서는 중학생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기 진실성 프로그램, 쓰기 정직성 프로그램, 쓰기 사회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구조는 ‘쓰기 윤리 관련 규준에 대한 이해—쓰기 윤리 관련 갈등 상황 제시—쓰기 윤리 관련 경험 공유—쓰기 윤리 관련 갈등 방안 논의—실천적 적용을 통한 쓰기 윤리 의식 내면화’의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 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 쓰기 윤리라면,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쓰기 활동을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쓰기 활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수행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즉, 윤리적 규범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규범을 지키면서 글을 쓰겠다는 태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쓰기 규범을 지키면서 쓰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면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을 ‘쓰기 윤리’ 자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쓰기 윤리를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다루면서, 쓰기 윤리를 내면화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쓰기 윤리 교육을 일종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일상적인 국어 수업과 통합하기 어렵고, 선택적으로 활용하더라도 특정 단원에서만 다룰 뿐 쓰기 윤리 관련 내용의 지속적인 연계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쓰기 윤

리 연구의 전개 과정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쓰기 윤리 연구가 활발해진 계기는 논문 표절이나 연구 결과 조작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부터이다. 그 결과 대학이나 학술 단체에서 연구 윤리 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대학생의 연구 윤리, 쓰기 윤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성인 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쓰기 윤리 문제를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윤리적으로 못 쓰는 경우’ 또는 ‘윤리적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비윤리적인 경우’로 가정한다. 따라서 쓰기 윤리에 대한 해결 방안도 쓰기 윤리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와 처벌 규정 강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방안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논문을 윤리적으로 쓸 수 있는 성인 필자가 표절을 한 경우와 쓰기 능력이 미숙한 중학생이 표절을 한 경우를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학생에게는 쓰기 윤리 교육을 통한 윤리 인식 제고와 처벌 규정 강화보다는 글을 윤리적으로 쓰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을 쓰기의 실제와 통합하여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한 편의 글, 예를 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윤리적으로 쓰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자는 것이다. 쓰기의 각 단계에서 윤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을 지도함으로써, 쓰기 윤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일상적인 국어 수업에서 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기 윤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쓰기 윤리를 쓰기의 실제와 통합하여 지도할 때의 또 다른 장점은, 장르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쓰기 윤리는 모든 글쓰기 상황에 적용된다. 그러나 장르에 따라 학생들이 저지르기 쉬운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이나 비중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설득하는 글에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다.

쓰기 윤리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유능한 성인 필자 대신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쓰기 윤리 교육이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윤리적으로 글 쓰기’에 대한 전문 필자와 학생들의 수준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특정 학년 혹은 특정 단계에서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전문 필자가 아니라 윤리적인 글 쓰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학생의 특성으로 기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쓰기 윤리와 관련된 양상을 고찰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려는 본고의 관점은, 쓰기 윤리 교육에서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zone of development)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정하는 데 용이하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여러 학년과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축적되면, 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을 학생의 수준, 학년군에 따라 위계화하거나 장르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 특히 쓰기 윤리 문제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설명적 텍스트 쓰기의 양상을 분석하고 쓰기 윤리의 교육 내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III. 설명적 텍스트 쓰기의 양상 분석

1. 연구 설계

‘설명적 텍스트’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텍스트를 의미하며, 국어과 교육과정의 표현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과 유사한 의미이다. 텍스트 유형과 종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나,³⁾ 본고에서 ‘설명적 텍스트’를 포괄적인 의미로 사

용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6차 이후로 텍스트의 유형을 국어 활동의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 ‘설득’, ‘친교’, ‘정서 표현’으로 나누고, 쓰기 영역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득하는 글’,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을 다루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는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구조, 내용 및 표현상의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수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도 반영될 수 있으며, 강조해야 하는 쓰기 윤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네 가지 텍스트 유형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선택하였다. 둘째, 본고의 분석 자료는 텍스트의 종류로 보면 ‘소개하는 글’이지만, 학생들의 자료 활용 양상이 ‘소개하는 글’에 국한되지 않고 정보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글, 즉 설명적 텍스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자료 수집

서울 소재 여자중학교 3학년 3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에게 제주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을 화면 녹화하기 위해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글을 쓸 때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sources)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집단에게는 출력본 형태의 참고 자료를 배부하였고, B집단에게는 실제적인 글쓰기와 가장 유사한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였다.⁵⁾

3) 텍스트 유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고익환, 박영철(1998), 이성만(2009) 등을, 텍스트 분류 체계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은 김봉순(2010)을 참고할 수 있다.

4) ‘writing from sources’는 주로 대학에서 학문 목적 글쓰기를 가리키는 용어이나, 본고에서 학생들이 쓰는 글과 쓰기 과정면에서 유사하다.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 글을 쓰는 데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라는 의미로 ‘참고 자료’라 읽기기로 한다.

5) 본고의 목적이 ‘참고 자료의 유형에 따른 글쓰기 과정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 등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출력본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인터넷 검색 자료와 출력본이 차이로 인해 글쓰기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고 자료의 유형을 달리한 것이다.

■ A집단(출력본 활용)

학생들이 ‘제주도 관광지’에 대해 검색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결과와 유사한 내용으로 참고 자료를 구성하였다. 참고 자료는 A4 5쪽 분량으로, 1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에 연결된 ‘관광 정보’ 사이트⁶⁾이고([그림 1]), 2~5쪽은 1쪽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24 개 관광지에 링크된 사이트의 관광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2] 는 2쪽 성산일출봉에 대한 관광 정보이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각 페이지의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1쪽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을 칠판에 적고, 관광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광지 이름에 링크된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B집단(하이퍼텍스트 활용)

참고 자료 1쪽에 해당하는 사이트의 URL을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각자 해당 사이트를 화면에 띄우도록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그림 1]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24개 관광지의 이름을 클릭하면 각각에 대한 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글쓰기의 유의사항으로는 평상시에 자신이 학교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쓸 것, 자료를 부분적으로 인용할 수는 있으나 글 전체를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⁷⁾ 연구자의 설명 이후에 학생들에게 70분 정도의 시간을 주었으며, 2명을 제외한 30명의 학생들이 완성된 글을 작성하였다.

6) [<http://www.jejutour.go.kr/contents/index.php?mid=0114&lines=300>,]

7) 그 밖의 주의사항으로는 내용 선정을 위해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메모하거나 밑줄을 그어도 되며, 문제지 여백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메모하거나 개요를 작성해도 된다는 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이지만 영어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림 1] 참고 자료의 1쪽

성산일출봉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14

■ 연락처 : 064-783-0959

■ 설립근거 : 문화재보호법

[동영상]
[이전화면]
[지도보기]
[스크랩하기]
[프린트하기]

- 소개
- 교통
- 약도
- 요금안내
- 주변안내
- 주인장소식
- 네이버평가
- 갤러리

■ 소개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년 전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폭발한 화산체이다. 용암이 물에 섞일 때 일어나는 폭발로 용암은 고운 화산재로 부서져 분화구 둘레에 원뿔형으로 쌓여 있다. 원래는 화산섬이었지만 신양해수욕장쪽 땅과 섬 사이에 모래와 자갈이 쌓여 육지와 연결이 된 것이다.

일출봉 정상에는 지름 6배m, 바다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 8만여 평이나 되는 분화구가 자리한다. 이곳에서 이장호 감독의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한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새밭을 이루며 우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옛부터 이곳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영주10경(제주의 경승지) 중에서 으뜸이라 하였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 오르는 일출은 온 바다를 물들이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불잡아 놓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 한다.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그림 2] 성산일출봉에 대한 관광 정보의 예

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분석 자료는 참고 자료, 학생이 작성한 글, 글쓰기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이다. 참고 자료와 학생들의 글에 대한 문서 대조 분석을 위해서 표절 검색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COPYLESS(3.00버전)과 DEVAC(0.9(a)버전)을 사용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학생들의 표절에 대한 양상이나 정도를 알아보는 데 있지 않고, 표절 비율 혹은 표절의 가능성성이 낮거나 높게 나타난 글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글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두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⁸⁾

8) 슨보소프트(snbosoft)에서 개발한 COPYLESS(3.00버전)는 인터넷 표절과 문서 간의 표

2. 설명적 텍스트 쓰기의 양상과 특징

이 절에서는 전체적인 표절 정도,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구조, 글쓰기의 양상, 표절 비율에 따른 특성, 참고 자료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 등을 구조, 내용(내용 구성하기), 표현(참고 자료 짜깁기하기)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쓰기 윤리 교육 내용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내용 구성하기’와 ‘참고 자료 짜깁기하기’는 서로 대비되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참고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는 양상으로는 요약하기, 정의하기, 관련 내용 추가하기가 있다. 이와 반대로 참고 자료의 내용은 다듬지 않으면서 어미, 단어 등을 고치는 경우를 ‘참고 자료 짜깁기하기’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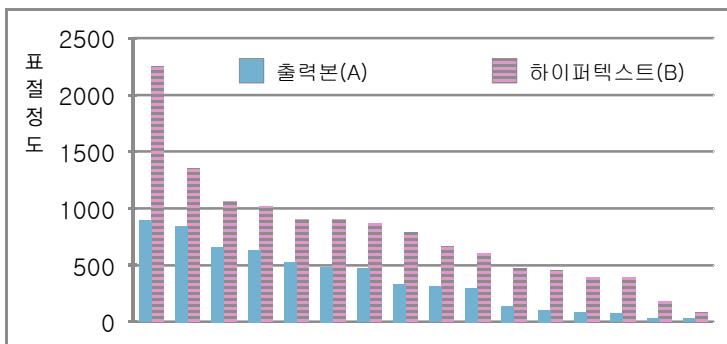
1) 표절 정도

학생들의 글은 참고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절 비율은 0%~68%이었으나, 참고 자료와 학생의 글을 직접 대조해 본 결과로는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았다.

<표 2>는 참고 자료의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표절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로축의 수치는 Devac 프로그램의 표절 검색 결과 보고서에서의 ‘절대유사도’에 해당한다. ‘절대유사도’는 참고 자료와 학생 글이 서로 유사한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며, 30.6~2250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참고 자료의 유형에 따라 막대를 구분하였으며, 각 집단에서 표절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였다. 막대의 길이는 학생 작문의 표절 정도를 의미 하므로, 두 집단 간, 학생 간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절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보고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산대학교에서 개발한 DEVAC은 ‘절대유사도’ 개념을 활용하여 한두 글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표현이 비슷하면 검색해 낸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참고 자료 형태에 따른 표절 정도



〈표 2〉를 통해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참고 자료를 활용한 학생(B집단)이 출력본을 활용한 학생(A집단)보다 표절 정도가 뚜렷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출력본은 정보가 고정되어 있고, 하이퍼텍스트 형태에는 각 관광지 별로 [그림 2]의 내용 아래에 요금이나 교통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표절 정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B집단이 표절 정도가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본고에서는 출력본 참고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학생 작문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대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B집단의 표절 정도가 뚜렷하게 높게 나온 이유는 참고 자료로부터 선정한 내용을 자신의 글로 옮기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참고 자료는 전체를 복사해서 작성 중인 글에 붙여 넣기가 용이하므로, 학생들은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 내용 구성하기’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2) 글의 구조

학생들이 작성한 글의 전체 구조는 〈표 3〉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⁹⁾ 처음 부분은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도입에 해당하는 내용, 중간 부분은 제주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끝 부분은 제주도에 올 것을 권유하면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도입이나 정리 부분이 생략되고 두 부분으로만 구성된 글도 각각 3편, 5편이었으며, 도입과 정리 부분이 모두 생략된 글은 3편이었다. 문단을 구분하지 않고 글 전체를 한 문단으로 작성하여 이러한 구조가 내용상으로만 구분되는 글은 3편이었다.

〈표 3〉 학생 글의 전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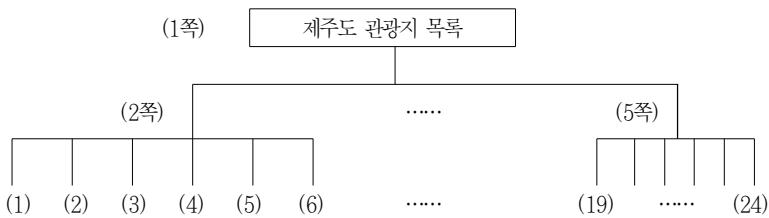
구조	문단을 구분한 글	한 문단으로 이루어진 글
도입-본격적인 소개-정리	17편	2편
도입-본격적인 소개 (정리 부분이 생략됨)	5편	0편
본격적인 소개-정리 (도입이 생략됨)	3편	0편
본격적인 소개만 있는 경우	2편	1편

천경록(1995)에서는 설명적인 글의 구조를 시간 순서 구조, 열거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원인과 결과, 문제와 해결 구조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도해 조직자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의 참고 자료를 하나의 텍스트라고 본다면, 전체의 내용 구조는 열거 구조이다. 열거 구조는 어떤 일반화된 생각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일련의 생각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말한다(천경록, 1995 : 202). 도해 조직자의 유형을 활용하여 참고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¹⁰⁾ 1쪽에서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1)~(24)는 24개 관광지 각각에 대한 관광 정보를 가리킨다.

9) 전체 구조에서는 완성된 글 30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0) 1쪽에는 ‘제주도 관광지 목록’에 해당하는 ‘주간베스트 24’ 이외에 관광 정보를 다양하게 분류한 하위 항목들이 있다. ‘볼거리’, ‘느낄거리’, ‘놀거리’ 또는 ‘볼거리’에 대한 하위 분류로 ‘문화유적지’, ‘동굴’, ‘오름’ 등이 있고,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들이 링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관광지 정보에 대한 활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제주도 관광지 목록’만 내용 구조에 반영하였다.

〈표 4〉 참고 자료의 내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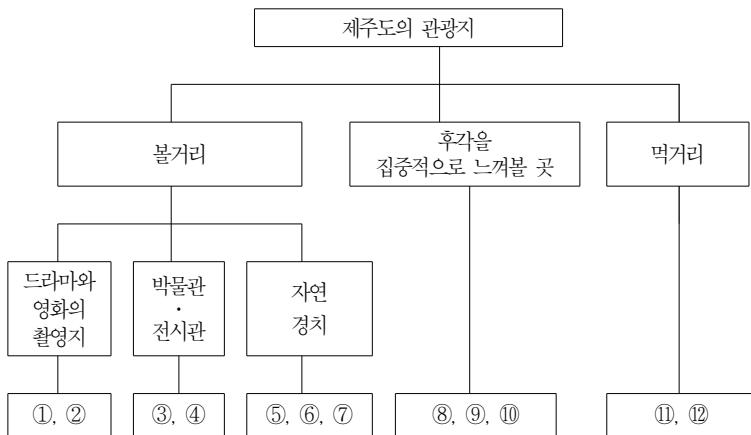


학생들이 작성한 글에서 제주도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 부분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면, <표 4>의 2~5쪽의 구조와 같이 ‘관광지 A – 관광지 B – 관광지 C ……’의 열거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즉 참고 자료가 제주도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의 성격을 지니므로, 학생들은 참고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 구조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예로는 24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열거하되, <표 5>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적용한 경우이다. 다음 글에서는 1차적으로 “볼거리”,¹¹⁾ “후각을 집중적으로 느껴 볼 곳”, “먹거리”로 분류하고, “볼거리”를 다시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 “박물관 · 전시관”, “자연”으로 나누어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①~⑫는 하위 분류에 속하는 관광지나 먹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며, 열거 구조로 구성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부분도 있어서 박스로 처리하였다. 또한 참고 자료 1쪽에 제시된 관광지의 주소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시에 있는 관광지”와 “서귀포시에 있는 관광지”로 분류한 경우도 있었다.

11) 큰따옴표를 사용한 부분은 학생의 글에서 직접 인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표 5〉 분류를 통해 내용을 조직한 예



3) 내용 구성하기

가. 요약하기

전체 텍스트 내용에 대한 반영 정도에 따라 요약하기를 객관적 요약(일반 목적의 요약)과 주관적 요약(특수 목적의 요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객관적 요약은 전체 텍스트 내용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정보를 선별, 압축, 재생산하는 것”이며, “주관적 요약은 독자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의 취득이나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텍스트 정보를 선별, 압축, 재생산하는 것”이다(서혁, 2010 : 36).

본고에서 학생들은 ‘작성하려는 글에 활용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읽는다. 즉, 읽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쓰기를 위해’ 읽고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주관적 요약’, ‘특수 목적의 요약’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요약하기 활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관찰되었다. 첫 번째는 각 관광지에 대한 텍스트 전체를 요약하여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1차적으로 활용할 부분을 선택하고, 해당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경우이다.

① 텍스트 전체를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한 경우

텍스트 전체를 글 쓰기에 활용하기 위해 하나의 문단으로 작성하는 유형은 객관적 요약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추출한 요약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 서혁(2010 : 35)에서는 요약 규칙을 “중심문장 선택, 상위어로 일반화, 중심문장의 생성(재구성)”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에 제시한 참고 자료와 학생 글을 살펴보면, 참고 자료는 천지연 폭포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글에서는 참고 자료를 천지연 폭포의 ‘규모’, ‘모습’, ‘동·식물 생태’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마지막 문장으로 천지연 폭포를 추천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특히 천지연 폭포 계곡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식물과 무태장어에 대한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생략하고 “여러 희귀식물과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일반화하여 표현하였다.

〈참고 자료 : 하이퍼텍스트 형식〉

기암절벽 위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기둥이 바로 천지연폭포.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 하여 천지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높이 22m, 폭 12m에 이르는 폭포가 절벽 아래로 웅장한 소리를 내며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며, 천지연폭포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풀수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희귀식물인 송엽란, 구실잣밤나무, 산유자나무, 동백나무 등의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천연기념물 제27호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해마다 9월 칠십리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학생 글의 예〉

제주도에서 유명한 폭포, 천지연 폭포가 있는데요. 천지연 폭포는 높이 22m, 폭 12m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은 장관입니다. 또 이 곳에는 여러 희귀식물과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합니다. 이 곳에 가시면 숲과 폭포의 이름다움에 폭 빼지실 수 있습니다.

② 1차로 선정한 내용을 요약한 경우

참고 자료에서 활용할 내용을 먼저 선정한 뒤 해당 부분을 요약한 경우는 참고 자료의 형식, 표절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 표절 정도가 높은 글

출력본을 활용한 A집단 중에서 표절 정도가 높은 글에서는 선정한 내용을 그대로 모니터에 옮겨 쓰면서 — 내용을 옮겨 쓰는 동안 중간에 멈추는 횟수나 시간이 많지 않다. — 참고 자료에서 ‘-다’로 끝난 문장을 ‘-습니다’ 등과 같이 어미만 통일시키는 양상이 나타났다.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자료를 활용한 B집단 가운데 표절 정도가 높은 글의 쓰기 과정은, A집단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옮겨 쓰는 양상만 달랐다.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참고 자료에서 선정한 내용을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여 복사하고, 작업 중인 한글 프로그램 창에 붙여 넣은 다음, 문장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두 집단 모두 표절 정도가 높은 글의 경우, 참고 자료를 짧게 줄여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요약하기 활동’은 하였지만,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요약’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 자료의 일부를 선택하기만 하고 내용을 다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짜깁기’의 양상에서 다루기로 한다.

■ 표절 정도가 낮은 글

A집단에서 표절 정도가 낮은 글에서는 참고 자료를 보면서 쓸 내용을 생각하고 나서 그 결과를 모니터에 옮겨 쓰는 양상을 보였다. 표절 정도가 높은 글에서와 달리,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쓰는 부분에서 멈춰 있는 횟수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A집단은 참고 자료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한 내용이 화면 녹화에서 관찰되지 않는다.¹²⁾ 다음에서

12) 1차 선정한 내용이 화면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텍스트 전체를 요약한 경우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예시 글에서는 참고 자료가 섭지코지의 ‘자연 경관, 영화·드라마 촬영지, 전설’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이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보았다.

참고 자료의 내용은 학생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예상한 것이다. ‘^’는 쓰기 과정 도중의 정지 상태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 출력본〉

제주특별자치도 동쪽 해안에 불록 튀어나온 섭지코지는 봄철이면 노란 유채꽃과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풍경이 일품입니다.

들머리의 신양해변백사장, 끝머리 언덕위 평원에 드리워진 유채밭, 여유롭게 풀을 뜯는 제주조랑말들, 그리고 바위로 둘러친 해안절벽과 우뚝 치솟은 전설어린 선바위 등은 전형적인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 글의 예〉

세 번째로, ^ 많은 드라마, 영화의 촬영지로 쓰였던 섭지코지입니다. 섭지코지의 풍경을 소개하라면 ^ 언덕 위 평면에 널려 있는 유채꽃과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조랑말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풍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세 번째로,”를 쓰고 나서 쓸 내용을 구상하기 위해 34초 정도를 멈춰 있었으며, 특히 “섭지코지의 풍경을 소개하라면”을 쓴 다음에는 풍경에 대한 부분을 요약하기 위해 1분 39초 정도 멈춰 있었다.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참고 자료를 활용한 B집단 학생은 공통적으로 참고 자료에서 일부분을 복사하여 한글 프로그램 창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복사하여 붙인 내용을 어느 정도로 다듬는가에 따라 표절 정도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자료의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의하는 것 역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표절에 대한 지식, 인터넷 자료에 대한 독해 능력, 컴퓨터 작문 능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자료를 그대로 베끼지 않고 다듬으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삭제하기’는 요약하기의 ‘기초’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학생들이 복사하여 붙인 내용을 활용하여 글을 쓸 때 흔히 사용하는 요약하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문장을 삭제하거나 문장의 일부

를 삭제하는 것이다. 다음의 학생 글은 참고 자료의 일부를 주로 삭제함으로써 요약한 예이다. [] 안의 내용은 참고 자료에서 삭제된 부분이며, 학생이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먼저 첫 번째 관광지로 성산일출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년 전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 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폭발한 화산체[이다→입니다. (중략) 일출봉 정 상에는 [지름 6백m, 바다면의 높이 해발 90m에 면적이 8만여 평이나 되는] 분화구가 [자리한다→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서 이장호 감독의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한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억새밭을 이루며 우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인다. 예부터] [이곳→이 [성산일 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영주10경(제주의 경승지) 중[에서] 으뜸이라 [하였다→하기도 합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 글거리며 솟아 오르는 일출은 온 바다를 물들이고 보는이의 마음까지도 불 잡아 놓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한다.] 성산일출봉은 지방기념 물로 관리하다 2000년에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삭제의 방법으로 요약을 할 때에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내용을 줄이려고만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보충하면서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풍경으로는 ‘우도팔경’이라 하여 낮과 밤, 하늘과 땅, 앞과 뒤, 동과 서를 손꼽습니다.

위 글은 참고 자료의 “~ 낮과 밤(주간명월, 야항어범), 하늘과 땅(천진관 산, 지두청사), 앞과 뒤(전포망대, 후해석벽), 동과 서(동안경굴, 서빈백사)를 손꼽습니다.” 부분을 활용하면서, 팔호 안의 내용을 어려운 단어로 판단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어를 삭제함으로써 ‘우도팔경’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간명월’, ‘야항어범’ 등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쓰

기(paraphrase)를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표절 정도가 높은 B집단 중에서도 표절 정도가 낮았던 글에서 긍정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몇몇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한 결과 ‘복사하여 붙여 넣기’의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P학생은 인터넷 자료를 읽은 다음,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훈글 프로그램 창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인터넷 창을 띄워서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한 문장 전체를 활용할 때에는 내용을 복사하여 붙이고 나서 내용을 다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Devac 프로그램에서 문서 간 비교 결과를 통해,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부분이 전체 글의 표절 정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흔히 표절을 피하는 전략의 하나로 ‘자료를 보지 말고 읽은 내용을 회상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라’를 듣다. 이 학생은 이와 같은 전략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표절 정도가 낮은 글을 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학생은 ‘복사하여 붙여 넣기’한 자료를 직접 다듬지 않고, 작성 중인 부분 아래에 옮겨 두고 참고함으로써 출력본을 대신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음 자료는 S학생이 훈글 프로그램에서 글을 쓰는 과정을 캡처한 것이다.

제주도, 하면 역시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지요. 한라산은 경치로 유명한 산입니다.
한라산은 가을에 낙엽이 물드는 시기와, 겨울에 눈 꽂이 필 때 가시면 정말 장관입니다.

천자만홍에 덮인 가을의 만산홍엽은 빼놓을 수 없는 경관이며, 유독 눈 속에 잠긴 설경의 한라는 절경 중의 절경으로 꼽힌다.

이 학생은 첫 문장을 쓰고 나서, 인터넷 창을 열어 ‘한라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읽은 후 “한라산은 경치로 유명한 산입니다.”를 작성하였다. 그 다음 다시 인터넷 창에서 “천자만홍에 덮인 가을의 ~” 부분을 복사하여 붙이고 나서, 위의 그림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 그림의 두 번째 줄을 보면, 학생이 이 부분을 참고하여 “한라산은 가을에 ~ 정말 장관입니다.”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 창과 훈글 프로그램 창을 오가는

횟수를 줄이고 참고 자료의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료를 보지 않고 표현하기’와 대비되는 방법이지만, 회상을 통한 요약에 어려움이 있거나 표절의 비윤리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다.

나. 정의하기

학생들은 참고 자료에서 관광지에 대한 백과사전적 정의¹³⁾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대로 베껴 쓰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제시한 학생의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만장굴에 대한 참고 자료의 첫 문단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학생은 만장굴에 대해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데 첫 문단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분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대상을 설명하는 데에 대체로 백과사전적 정의가 효과적이지만, ‘공동’과 같은 단어는 예상 독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참고 자료〉

만장굴은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로서 폭은 약 5m, 높이는 5-10m가 되며 총 연장은 1만 3,422m에 이른다. 동굴 형성은 약 250만 년 전 제주도 화산 발생시 한라산 분화구에서 흘러 넘친 용암이 바닷가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금과 같은 커다란 공동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후략)

13) 최호철(2008)에서는 혼히 베타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던 ‘사전’(事典)과 ‘사전’(辭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어사전의 정의, 일본어에서의 정의, 영어권에서 ‘dictionary’의 정의 등을 비교함으로써, ‘사전(事典)’에서도 표제항은 여러 가지 사항,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사항들을 나타내는 ‘밀’이므로 ‘사전(辭典)’에 속하며 두 단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전(辭典) ⊥ 언어에 관한 사전(辭典)

└ 사항에 관한 사전(辭典) ⊂ 백과사전(百科辭典)

이정애(2010)에서는 최호철(2008)의 논의를 수용하여, ‘사전적 정의’의 하위 유형으로 ‘백과사전적 정의’와 ‘언어사전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 글의 예〉

다음 관광지로 만장굴은 세계 최장의 용암동굴로서 폭은 약 5m, 높이는 5~10m가 되며 총 연장은 1만 3.422m에 이른다. 동굴 형성은 약 250만 년 전 제주도 화산 발생시 한라산 분화구에서 흘러 넘친 용암이 바닷가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지금과 같은 커다란 공동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다. 관련 내용 추가하기

대부분의 학생들은 참고 자료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으나, 글의 목적이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추가한 글도 있다. 추가된 정보로는 관광지에 대한 세부 정보, 해당 관광지를 추천하는 이유 등이 있다. 학생들은 제주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예상 독자이므로,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 관람료, 교통편 등을 추가하였다. 다음 글에서 맡출 친 부분은 관람료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학생이 새로 추가한 내용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소인국 테마파크’이다. 이 곳은 국내 최고의 미니어처 테마파크로써,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물이 축소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국사, 자금성, 피사의 사탑, 자유의 여신상 등 실물과 똑같이 만들었다. 일반 요금은 7000원이고, 청소년일 경우 5000원이다. 30인 이상 단체로 관람할 경우, 각각 2000원, 1500원이 할인된다. 그 밖에도, 한식당, 기념품샵, 편의점, 도자기매장, 칠보공예, 실내 및 야외공연장이 부대시설도 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글들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내용을 생성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지만, 문단의 구조도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 글에서는 대체로 관광지 한 곳에 대한 소개를 한 문단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절에 가까운 수준으로 쓴 학생들은 참고 자료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삭제해 가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글에서는 참고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므로 관광지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 구조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문단의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거나, 공통된 구성 요소들—관광지의 위치, 꼭 봐야 할 것(유명한 것) 등—이 있더라도 각 문단마다 다른 순서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글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지고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

이에 반해 능동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고 자료에 덜 의존적인 글에서는, 각 관광지별로 문단의 내용이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지의 주소, 연락처, 교통편, 공항에서 찾아오는 길, 간단한 소개’의 구조이다. 이러한 글은 하위 요소들을 적절한 순서로 조작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고, 독자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각 문단의 내용 제시 순서와 구조의 변화로 인해 참고 자료와는 질적으로 다른 글이 되었고, 표절 비율과 정도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참고 자료 짜깁기하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짜깁기’를 찾아보면, “기존의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이 있고, 예문으로 “그는 여러 논문을 짜깁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있다. 학생들이 참고 자료를 재구성하여 글을 쓰는 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한 글도 염밀히 말하면 짜깁기에 속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짜깁기’를 참고 자료의 내용, 즉 관광지의 정보 부분은 바꾸지 않고, 어미, 대용 표현, 접속어만 바꾼 경우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글쓰기 양상은 부정적인 사례이지만, 글쓰기 실태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어미의 통일

참고 자료에 있는 글은 각 관광지에 따라 표현상의 특징이 다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결 어미에 의한 높임 표현인데, “우도는 소가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와 같이 높임 표현을 사용한 글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에 국내 최대의 미니어처 테마파크가 탄생했다.”와 같은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참고 자료의 내

용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거나 출력본을 보고 입력하면서 어미만 통일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나. 간접 인용 표현

인용은 대체로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참고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 사용한다. 그러나 다음 글은 인용의 효과를 고려했다기보다는 참고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간접 인용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경우이다. 밑줄 친 부분 만 학생이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이며, 나머지는 참고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다. () 안의 내용은 수정하기 전의 표현이다.

먼저 성산일출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10만년 전 제주도 수많은 분화구 중에서는 드물게 바다 속에서 수중폭발한 화산체입니다. (중략) 그리고 ('옛부터' 삭제) 이곳 성산일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광경은 영주10경(제주의 경승지) 중에서 으뜸이라 했고(←했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수평선에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일출은 온 바다를 물들이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불잡아 놓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케한다고 합니다.(←감탄케한다)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곳이다)

셋째 줄의 “그리고” 이하를 살펴보면, 참고 자료의 “옛부터 ~ 으뜸이라 했다.”는 간접 인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어미만 연결 어미로 교체한 것이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저편 ~ 저절로 감탄케 한다.”는 참고 자료를 쓴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간접 인용이 불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 지정된 곳이다.” 역시 “해발 182m인 성산 일출봉은 ~ 수중폭발한 화산체입니다.”와 같이 백과사전적 정보에 해당하므로 간접 인용을 사용하지 않고 “~ 지정된 곳입니다.”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대용 표현 사용

Beaugrande & Dressler(1995)에서는 접속과 대용 표현이 발화체, 문장들 간의 연속성(continuity)을 강화하는 결속구조(cohesion)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 러므로 접속과 대용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참고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는 활동은 긍정적인 전략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참고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혹은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용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음 글은 ‘이곳’을 과도하게 사용한 예이다.

외국인이 제주도에 왔을 때 어느 곳을 먼저 가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①이곳에 가봤으면 좋겠다. 바로 ‘천지연폭포’이다. ②이곳을 천지연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이라 하기 때문이다. ③이곳의 모습은 높이 22m, 폭 12m에 이르는 폭포가 절벽 아래로웅장한 소리를 내며 세차게 떨어지고, 이곳의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팔수나무가 있다. 또한 희귀식물인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눈이 즐겁고 편안해진다.

①은 후조응(cataphora)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②은 ‘천지연폭포’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③은 뒤따르는 내용에 “폭포가”가 나오고, “이곳의 모습은 ~ 세차게 떨어지고”와 같이 주술 호응도 어색하다.

또한 참고 자료에서 대용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체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대신하는 전조응(anaphora)인 경우가 많으므로, 대용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참고 자료에서 해당 자료의 필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글에서 [] 부분은 참고 자료의 한 문단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참고 자료에서 “저희”는 공원 관계자를 가리키는데 학생의 글에서 바꾸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저희”, “내”, “드립니다”, “것이다.” 등의 표현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아서 글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김녕미로공원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면 미로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은은한 향 내음이 나는 랠란디 나무사이를 걸으며 길을 찾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이영애의 CF광고로 더욱 유명해진 저희 공원은 연인들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드립니다.]

내가 알려준 볼거리 3가지는 다른 사람도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보면 후회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하락)

라. 접속어, 연결 어미 사용

학생들은 참고 자료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접속어를 사용하여 두 문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두 가지 정보를 접속어를 추가함으로써 연결하여 쓰기도 한다. 또한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지, 두 가지 정보를 연결하는 데 적절한 접속어인지, 한 문장으로 연결된 후에 문장들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㊂이곳의 모습은 높이 22m, 폭 12m에 이르는 폭포가 절벽 아래로 웅장한 소리를 내며 세차게 떨어지고, 이곳의 계곡에는 천연기념물 제163호 담팔수나무가 있다. 또한 ④희귀식물인 난대성 식물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눈이 즐겁고 편안해진다.

위 글에서는 ②와 ④를 “또한”으로 접속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에서 한 문장이던 것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면, 폭포의 ‘모습’과 ‘식생’을 각각 한 문장으로 하여 “또한 이곳의 계곡에는 ~밤팔수나무가 있으며, 희귀식물인 ~ ”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 비문법적인 문장

참고 자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다 보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되기 쉽다. 문장 성분이 중복되거나, 주어와 서술어 등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 안은 참고 자료의 내용이다.

하얀 물기둥이 바로 천지연 폭포]라고 합니다.

이 문장은 주어가 중복된 문장으로 “천지연 폭포는 ~ 천지연 폭포라고 합니다.”와 같이 주술 호응에도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의 첫 문장인 “기암절벽 위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기둥이 바로 천지연폭포.”를 잘못 활용한 예이다.

바. 문장의 의미 변화

참고 자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짜깁기하게 되면,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생산되기도 한다.

그림같은 푸른 바닷가의 집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TV 드라마 「울인」 촬영셋트장으로 유명해진 섭지코지는 협자연대가 있으며 등 대가 자리잡고 있어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의 “영화 ‘단적비연수’에서 최진실이 살았던 그림같은 푸른 바닷가의 집이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에서 앞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한 표현이 되었다.

IV.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쓰기 윤리 교육 내용

III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관련된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쓰기 윤리의 범주를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 쓰기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하되 ‘지식’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계해 보고자 한다.

1.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쓰기 윤리의 범주

학생의 글에서 발견되는 내용상의 오류, 지나치게 어려운 표현 등을 참고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쓴 경우가 많았다. 설명적 텍스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쓴다. 따라서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으로 설명적 텍스트를 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설명적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를 읽고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설명적 텍스트 쓰기와 관련된 쓰기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대상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이다. 이는 필자의 생각이나 지식과 일치되게 쓴다는 ‘진실하기 쓰기’¹⁴⁾ 범주를 설명적 텍스트 쓰기에 적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적 텍스트를 쓸 때에는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표절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하게 쓰기’ 범주를 강조해야 한다. 조사한 자료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써야 한다는 ‘사실대로 쓰기’ 범주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2. ‘설명적 텍스트 윤리적으로 쓰기’의 교육 내용

1) 내용 생성하기 및 조직하기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떠올리거나, 자료 수집하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도 있다.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윤리적 문제(예. 불법 다운로드), 자료 자체에 대한 윤리적 판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자료를

14) 쓰기 윤리의 범주에 대해서는 가온아(2009)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충분히 이해하여 ‘잘 아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직하게 쓰기’와 관련하여서는 출처 밝히는 방법을 ‘지식’으로 구성하고, ‘기능’에서 전략으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출처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메모해 둘 것, 인터넷 자료는 URL을 적어두거나 ‘즐겨찾기’로 저장해 둘 것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설명적 텍스트는 ‘처음(머리말)–중간(본문)–끝(맺음말)’ 등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이나 ‘끝’이 설명적 텍스트에서 독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도하여, 글의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설명적 텍스트에서는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참고 자료를 통한 내용 선정과 조직 단계에서도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설명적 텍스트의 구조와 각 부분의 특성은 ‘지식’으로 구성한다.

또한 개요 작성하기를 통해 자료 수집과 내용 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하면, 필요한 자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에서 선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요를 수정하여 완성한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개요에 추가해 두도록 한다. 개요 작성하기와 다듬기와 관련된 내용은 ‘기능’으로 구성하되,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표현하기

참고 자료를 활용한 글 쓰기에서 필요한 기능은 표절하지 않고 쓰기, 자료를 적절히 요약하기, 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인용하기, 참고 자료를 내가 쓰는 글에 맞게 재구성하기 등이다. 또한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는 이들 기능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메타적 기능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글을 분석해 보면, 참고 자료는 주로 본격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에서 활용되므로 이 부분이 표절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중간 부분에서 다양한 설명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가. 요약하기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 요약하기는 필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관찰한 학생들 중에는 요약하기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요약하기는 참고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 자신이 쓸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요약하여 표현하는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인지과정이다. 따라서 요약하기는 표절하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해 반드시 지도해야 할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요약 규칙을 ‘지식’으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요약 규칙 적용하기, 삭제¹⁵⁾ 방법을 활용한 요약하기,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회상을 통한 요약하기, 참고 자료를 보면서 요약하기) 등을 ‘전략’으로 구성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핵심어는 삭제하지 않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도한다.

나. 인용하기

‘인용하기’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표절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전략이 아니라, 인용을 통한 출처 밝히기가 자신의 글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인용법, 인용의 수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나 출처 등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글의 예상 독자도 필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것임을 설명한다. 이때에 전문가 혹은 전문 서적 등의 출처를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상 독자들은 전체 글에서 인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분량을 기준으로 글을 평가하기도 하므로, 인용을 할 때에는 비중이나 분량을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15) 요약 규칙에서 사용되는 ‘삭제’는 사고 과정이지만, 여기에서의 ‘삭제’는 인쇄된 자료의 내용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줄 긋기, 컴퓨터의 ‘삭제’ 기능 활용하기에 해당한다.

다. 정의하기

정의는 설명적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진술 방식이다. 따라서 참고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정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정의에 대해 지도할 때에는 주로 ‘A는 B이다’와 같은 형식과, 국어사전에 제시된 단어에 대한 정의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한다. 그러나 설명 대상이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일 경우,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백과사전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의하기’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는 올바른 인용법을 사용하여 정의하기,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의 내용을 활용하여 정의하기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정의하기에 필요한 올바른 인용법의 내용, 국어사전과 백과사전의 특성이나 기술 내용의 차이는 ‘지식’으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어나 표현을 예상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꾼다.’를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인용한 부분을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기법¹⁶⁾도 소개한다.

3) 고쳐쓰기

‘참고 자료 짜깁기’의 양상에서 기술한 문제들은 참고 자료를 재구성하거나 바꿔쓰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라면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참고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고쳐쓰기의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다. 고쳐쓰기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가 완성된 글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도록 지도한다.

16) Lipson(2004/2008 : 65~67)에서는 인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인용문을 옮겨 적을 때 출처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인용 부분의 처음과 끝 부분에 ‘인용(quotation)’을 의미하는 대문자 Q를 적어두고, 페이지가 나누어진 지점에 쌍따옴표(“ ”)으로 표시해 두라는 것이다. Q나 쌍따옴표 대신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호를 정하거나,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표시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전체적으로 어미가 통일되어 있는가?
- 간접 인용 표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았는가?
- 대용 표현의 사용은 적절한가? / 참고 자료에서 사용된 대용 표현을 적절하게 바꿔 썼는가?
- 한 문장을 둘로 나누어 접속어로 연결했을 때, 참고 자료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 주술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 없는가?
- 문장의 일부를 삭제한 결과,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상에서 서술한 설명적 텍스트 쓰기에서 쓰기 윤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를 글쓰기의 실제에 통합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표 6>의 내용은 쓰기 윤리 자체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설명적 텍스트 윤리적으로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즉 일반적인 쓰기, 설명적 텍스트 쓰기,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 윤리적으로 글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에서 ①은 일반적인 쓰기, ②는 설명적 텍스트 쓰기, ③은 자료 활용하여 글 쓰기, ④는 쓰기 윤리와 관련되는 교육 내용임을 의미하며, ‘+’은 각 상황에서의 교육 내용이 통합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③+④는 ‘자료 활용하여 글을 쓸 때에 적용될 수 있는 쓰기 윤리’를 의미한다.¹⁷⁾ 이러한 구분은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¹⁸⁾

17) ‘요약하기’은 흔히 읽기 전략으로 다뤄지고 있으므로 ‘쓰기’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일반적인 국어 활동’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약하기는 자료 활용 글쓰기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쓰기와 관련된 네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18) 논문 심사 과정에서 <표 6>의 내용이 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지, 일반적인 쓰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윤리인지, 설명적 텍스트에만 해당되는 윤리인지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③+④’와 같은 방식을 시도해 본 것이다.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쓰기 윤리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표 6〉 ‘설명적 텍스트 윤리적으로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

과정	지식	기능
내용 생성 · 조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적 텍스트에 대해 알기(특성, 구조) ② • 자료 수집 방법 알기 ③ • 자료를 활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 알기 ③+④ • 출처 밝히는 방법 알기 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으로 자료 수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지 않기 ③+④ - 수집한 자료에 대해 윤리적으로 평가하기 ③+④ - 출처 관련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기 ③+④ - 인터넷 자료 URL 기록, 즐겨찾기 기능 활용하기 ③+④ • 참고 자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②+③+④ • 수집한 자료에서 내용 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의 방법으로 선정한 내용 정리하기 ②+③ • 개요 작성하기 및 수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략적인 개요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계획 세우기 ①+②+③ - 개요 수정하기(자료에서 선정한 내용 반영하기, 수집한 자료의 활용 계획 메모하기) ①+②+③
표현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규칙 알기 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쓰기 기능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인용, 정의 중 적절한 방법 선택하기 ①+②+③+④ • 요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요약 규칙 적용하기 ②+③+④ - 삭제 방법을 활용한 요약하기 ②+③+④ -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요약하기(희상을 통한 요약하기, 참고 자료를 보면서 요약하기) ②+③+④ - 핵심어는 삭제하지 않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기 ②+③+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에 대해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바른 인용법 알기 ②+③ - 인용의 수사적 기능 알기 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재인용하기 ②+③+④ -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등 비중 고려하기 ②+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사전, 백과사전의 특성 알기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법 정확하게 사용하여 정의하기 ②+③+④ - 국어사전, 백과사전을 활용하여 정의하기 ②+③+④ - 단어 및 표현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 쓰기 ②+③+④
고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활용 글쓰기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 고쳐쓰기 ①+②+③ - 어미 통일하기, 간접 인용의 반복, 대용 표현, 접속어, 연결 어미, 주술 호응, 문장의 의미 변화

V. 맷음말

윤리적인 글쓰기는 쓰기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글쓰기의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쓰기 윤리 교육은 주로 쓰기 윤리를 강조하고, 쓰기 윤리를 내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쓰기 윤리를 위반하는 이유가 쓰기 능력의 부족에도 있다고 보고, 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쓰기의 ‘실제’와 통합하여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예로 ‘설명적 텍스트 윤리적으로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글쓰기 양상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윤리적인 글쓰기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쓰기 윤리 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의 수준, 학년에 따라 쓰기 윤리를 어느 수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쓰기 윤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절이나 짜깁기의 개념 또는 허용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쓰기 윤리 교육 역시 쓰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대학 수준의 표절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약하기의 예를 들면, 학생의 수준에 따라 삭제를 통한 요약하기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여 요약하기의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용법, 출처 밝히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용법, 인용 양식에 대한 내용에서 필수적인 항목만 선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글을 쓸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도중에는 “홍길동(2010)에서는~”과 같이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한다, 인용한 부분

뒤에는 ‘저자와 연도(홍길동, 2010)’만 밝히고, 상세한 출처 정보는 참고 문헌에서 제시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국어교육 연구자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글 쓰기를 지도할 때에는 참고 자료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형태에 따른 표절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학생들이 표절 정도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 단계에서는 인쇄본 형식으로 참고 자료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이퍼텍스트 형식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쓰기 과제를 구성할 때에는, 학생들의 쓰기 윤리 인식이나 쓰기 능력을 고려하여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의 수준에 맞는 과제,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완성된 글뿐만 아니라 쓰기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 필요한 기능들을 교과서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요약하기, 재구성하기, 정의하기 등은 쓰기뿐만 아니라 듣기·말하기, 읽기 상황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기능이므로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도 무방하다. 본고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과서 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009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능들이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가은아(2009), “중·고등학생을 위한 쓰기 윤리 교육의 방향과 지도 방안”,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pp.231~250.
- 고익환, 박영철(1998), “텍스트유형—분류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독일어문학』 8, 한국독일어문학회, pp.5~31.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5].
- 김봉순(2010), “국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류 체계 연구—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9호, 국어교육학회, pp.169~209.
- 박영민(2008),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제33호, 국어교육학회, pp.73~98.
- 박영민(2009a), “중학생의 쓰기 윤리 인식 분석”, 『작문연구』 제8집, 한국작문학회, pp.165~196.
- 박영민(2009b), “중학생 쓰기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40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201~234.
- 박영민, 최숙기(2008), “중학생 쓰기 윤리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37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41~79.
- 서 혁(2010), “문서 자동 요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39집, 국어교육학회, pp.31~63.
- 유한구·박상철·이인재·이재승·장신호·박영민(2007), 『초·중등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 이성만(2009), “텍스트유형학의 현황과 과제”, 『텍스트언어학』 2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1~53.
- 이정애(2010), “의미 규정에 대한 일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72집, 한국언어문화회, pp.67~94.
- 천경록(1995), “도해 조작자 지도가 독해에 미치는 효과”, 『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199~218.
- 최호철(2008), “‘사전’이란 단어와 ‘사전학, 사전편찬학’”이란 용어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제30집, 우리어문학회, pp.87~116.
- Beaugrande & Dressler(1995), 『텍스트 언어학 입문』, 김태옥·이현호(옮김), 서울 : 한신문화사(원서 1981).
- Lipson, C.(2008), 『정직한 글쓰기』, 김형주·이정아(옮김), 서울 : 멘토르(원서 2004). 짜집기], 표준국어대사전[online], retrieved from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초록>

설명적 텍스트 쓰기 양상 분석을 통한 쓰기 윤리 교육 내용 탐색

강민경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윤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쓰기 윤리에 대한 규범의 강조, 쓰기 규범의 내면화, 규제의 강화만으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렵다. 쓰기 윤리는 일종의 규범이지만, 윤리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기 윤리에 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쓰기의 실제와 통합하여 쓰기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설명적 텍스트 쓰기에서 쓰기 윤리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쓰기 과제는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소개하는 글 쓰기’이다. 참고 자료는 두 가지 유형—출력본과 하이퍼텍스트—으로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쓰기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 학생이 작성한 글을 분석하였으며, 두 가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정도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적 텍스트 윤리적으로 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지식’, ‘기능’으로 구성하였다.

【핵심어】 쓰기 교육, 쓰기 과정, 쓰기 전략, 쓰기 윤리, 쓰기 윤리 교육, 윤리적 글쓰기, 설명적 텍스트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s of ‘Writing Expository Text Ethically’
Instruction by Analysing Writing Process and Products

Kang, Min-gyeong

The typical solutions to ethics of writing' problem are strengthening ethics of writing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plagiarism. But in the middle or high school, the objective of teaching 'ethics of writing' is that students can write ethically. So the effec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thical writing is to integrate 'ethics of writing' as a kind of 'standards' with writing process as a kind of 'practice'.

This paper aims to concretize 'writing expository text ethically'. I analysed student's writing process and products. And I used two plagiarism detection program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writing process according to degree of plagiarism.

As the students wrote expository text from sources, their compositions were similar in text structure, contents, and expressions. But some students tried to avoid plagiarism by using some strategies—classification, summarizing, defining, adding content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I organized writing knowledge and writing strategies to help students to write expository text ethically.

【Key words】 writing, writing process, writing strategies, ethics of writing, writing ethically, plagiarism, expository text